여야 교과서 국정화 예산 격돌…교문위 상정도 못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자 연석회의에서 취재진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막오른 국회 예산 심의

산자위 등 6개 상임위 심의 착수
광주시·전남도 예산 확보 총력전

"다양한 학설은 이설 병기 검토"
국사편찬위 비판 거세지자 진화

국회는 19일 상임위원회별 전체회의를 열고 2016년도 정부 예산안을 상정,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오는 26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기에 앞서 각 상임위에서 1차적으로 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는 차원이다.

이날은 외교통일위·산업통상자원위·환경노동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정무위·국방위 등 6개 상임위가 열렸다. 하지만, 교문위는 여야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둘러싸고 격돌하면서 파행됐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총회를 열어 교문위의 경우 교과서 문제와 예산안 심사를 연계시키되 다른 상임위는 정상적인 예산 심사에 착수키로 결정한 때문이다. 따라서 교문위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는 일단 정상적인 예산심의에 착수, 지역정치권과 광주시·전남도는 내년도 광주·전남지역 국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날 관심의 초점은 교문위에 모아졌다. 최대 쟁점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다루는 상임위이기 때문이다.

애초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상정해 심사에 들어가야 했다. 하지만, 예산안은 상정도 하지 못한 채 역사교과서 국정화 공방만 벌였다.

교문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었으나 야당이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오후로 밀렸다.

야당은 오후 회의에서 교육부가 일부 여당 의원에게만 제출한 '고교 한국사교과서 분석 보고서'를 야당에도 제출하거나 끝내 제출하지 않을시 이에 대한 법적 조치 없이는 예산안 상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나섰다.

앞서 교육부는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분석 보고서를 야당에도 제출하라는 요구에 "특정 정당의 요구에 의해 제출한 자료"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었다.

이에 대해 교문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해당 자료는 교육부 직원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자료가 아니다"며 "공무처에서 공무적 이유로 공무원이 작성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당연히 제출해야 한다. 이것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새정치연합도 과거 다른 이름으로 집권 여당에 있을 때 정부 여당의 이름으로 당정회의를 많이 했다"며 "당시 정부 자료도 많이 받아보셨고 요구도 했을 텐데 당정 자료를 야당이 요구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도 거듭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지난 8일 대정부질문에서 황 부총리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구분 고시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힌 것을 놓고도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야당은 또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도 요구했다.

결국, 교문위는 개회된 지 1시간30분 동안 의사진행 발언으로 공방만 주고받다가 정회 됐고 속개를 위해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이날 회의는 더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2017학년도부터 적용되는 단일 한국사 교과서에 다양한 학설을 함께 적을지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던 국사편찬위원회(국편)가 비판이 거세지자 진화에 나섰다.

국편은 19일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통설이 있거나 새로운 학설이 우세한 경우, 경합하는 이설이 공존하거나 다양한 관점과 학설을 소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설 병기 등 내용 서술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편 김정배 위원장은 이 문제를 두고 "교과서에다가 다양성을 어떻게 집어 넣느냐"고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역사 전쟁' 3자 연석회의 출범

문재인·심상정·천정배 '1천만 시민 불복종 운동' 전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 신당 창당을 추진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19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1천만 서명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함께 전개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3자 연석회의' 첫 회의를 열고 이를 포함한 3가지 공동행동에 합의했다. 이들은 서명운동과 함께 역사학계와 시민사회, 교육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마련,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각계의 반대 여론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들(시민사회단체)까지 포함하는 '4자 연석회의'를 여는 것도 가능하다"며 "이미 역사 교과서 집필진들과의 토론회 등도 준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지금 논의는) 학계, 교육계, 시민사회, 학부모의 의견이 배제된 채 국정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에게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이 얘기를 나눌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역사 교과서 '진실과 거짓 체험관'을 설치,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홍보하기로 했다. 진실과 거짓 체험관은 정부 여당이 역사교과서 좌편향 등 국정화의 근거로 삼는 주장을 반박하는 성격의 공간으로, 전날 강남지역 학부모들이 문 대표에게 제안한 것을 수용한 것이다.

한편, 여권에서 연석회의를 '총선을 겨냥한 야권연대'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 유 대변인은 "역사 국정교과서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자 야권의 역할"이라며 "야권이 (이 사안에 연대해) 힘을 모으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자 응답 해야 할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정의당이 주장한 선거제도 개혁이나 노동개혁 공동대응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3자 연석회의를 계기로 야권 통합론이 부상하는 것과 관련, 천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신당 창당과는 관련이 없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총선 앞두고 '정치인 장관' 순차 개각 스타트

청와대 외교 참모진 KF-X 부실 대응 문책

朴대통령 부분 개각 배경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단행한 정부와 청와대 고위직 인사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당 복귀를 위한 부분 개각과 한국형 전투기(KF-X) 기술 이전문제 처리를 둘러싼 청와대 외교참모진에 대한 문책성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날인 이날 국토부와 해수부 장관 교체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이른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대상으로 한 순차개각의 스타트를 끊었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과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모두 현역 의원으로 지역구 출마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이미 청와대에 전달했다.

정치인 장관들의 '총선 물갈이설'로 공무원들의 업무기강이 해이해지고 업무연속성도 떨어진다는 보고가 청와대와 박 대통령에게 전달되면서 '공직사회 다잡기' 차원에서 예상보다 빨리 개각을 단행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다만,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의 현안이 있고, 김희정 여성부 장관은 아직 후임 적임자를 찾지 못해 이번 개각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이 마무리되는 12월 중으로는 3개 부처 장관 교체 작업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인사에서도 호남 출신은 배제돼 박 대통령이 강조했던 탕평인사 약속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새 장관급 내정자 프로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강호인(58)	김영석(56)	김규현(62)
출생	경남 함양	충남 아산	서울
학력	연세대 경영학과졸, 영국 케임브리지대 대학원 경제학과졸	경북대 행정학과졸, 미국 시라큐스대 대학원졸, 한국해양대 박사과정 수료졸	서울대 치의학과졸,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 행정학과졸
경력	행정고시 합격(24회) 2009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2010~2012 기획재정부 차관보 2012~2013 조달청장	행정고시 합격(27회) 2008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장 2009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2014~2015 해양수산부 차관	외무고시 합격(14회) 2013 외교부 제1차관 2014~2015 국가안보실 제1차장 2015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겸 국가안보실 제2차장(현)

연합뉴스

새 차관급 내정자 프로필

기재부 2차관	외교부 1차관	교육부 차관	국방부 차관	해수부 차관	복지부 차관	국가안보실 1차장
송언석(52)	임성남(57)	이영(50)	황인무(59)	윤학배(54)	방문규(53)	조태용(59)
경북	서울	서울	충북 옥천	강원	경기	서울
서울대 법학	서울대 외교학	서울대 경제학	육사 35기	한양대 행정학	서울대 영문학	서울대 정치학과졸
행정고시 29회	외무고시 14회	미시건대 경제학 박사	육군대학 총장	행정고시 29회	행정고시 28회	외무고시 14회
기재부 예산실장	주영국대사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위원	대통령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	기재부 2차관	외교부 1차관

연합뉴스